

남원시, 지리산 학교복합시설 건립

시, '활력타운' 예정지에 조성 공모 선정...총 196억원 투입 꿈키움미래공간·체육센터 등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남원시가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에 학교복합시설 들어선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지역 교육자원 양성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예정지에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9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38억원, 시비 58억원)을 투입한다.

미래교육실, 놀이센터, 스터디 카페 등으로 구성된 '꿈키움미래공간'과 실내체육관, 디지털스포츠교실 등을 포함한 '지리산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은 시내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동부권 아이들에게 균형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

고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정읍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미검사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대상이다.

단, 2023·2024년에 별도 검증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는 정해진 기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저울 소재장으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

면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이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정 검사일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물놀이·공연 즐기며 무더위 날리자"...남원시 워터밤 축제

요천 둔치일대 15~18일

울랄라세션·노라조 공연

남원시가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해 요천 둔치 일대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축제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지난해 요천 비치페스티벌 처음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축제는 색다른 모습의 워터슬라이드, 조립식 수영장, 워터풀장, 유아용 풀 등 다양한 시설 구축으로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형 축제로 진행된다.

물놀이 운영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축제장 내에서는 매일 어린이공연, 댄스파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17일과 18일 저녁에는 울랄라세션, 노라조 등 유명 가수들이 무더위를 날릴 특별 공연을 준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콘텐츠로 구성된 여름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개최되는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에 많은 관객이 방문하여 폭염 해소와 행복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한국잼버리 참가 세계 청소년들 고창 재방문



지난해 한국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국제 청소년들이 1년여 만에 고창을 찾아 문화관광 체험활동과 함께 고창군 홍보 서포터 활동을 약속했다. <고창군 제공>

선운사 등 유적지 방문 체험 활동 고창 모양성제 홍보 서포터 약속

"지난 잼버리 때의 고창군이 보여준 감동 잊지 않았어요."

지난해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국제 청소년들이 1년여 만에 고창을 찾아 문화관광 체험활동과 함께 고창군 홍보 서포터 활동을 약속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0·11일 4개국(케냐, 멕시코, 영국,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지난해 한국잼버리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1박2일 동안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등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고창의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운사에서 산사 체험과 다도체험 시간과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해 발달돌굴, 화살촉 등을 만들어보고, 신재호 판소리 공원을 방문하여 판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심덕섭 고창군수와 환담을 가지며, 고창 관광홍보영상, 2023년 잼버리 활동영상 등을 시청하였고, 박철 선생의 지도로 관내 스카우트 대원과 교류의 장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해외 잼버리 대원과 관내 스카우트 대원들은 제51회 고창모양성제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서포터즈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해외 청소년에게 고창군의 아름다움을 담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는 고창 모양성제 홍보 서포터즈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지난 잼버리대회 기간 중 고창읍성, 선운사내에 54개국 4640명의 대원이 방문했다. 성곽 트레킹, 전통문화 체험, 텀블 트래킹, K팝 댄스, 어드벤처 숲체험 등 다양한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중위소득 인상 맞춰 복지 혜택도 확대"

생계급여, 4인 기준 최대 11만7715원 추가...195만1287원 지급

정읍시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이 2025년에는 609만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1만7715원이 추가로 지급돼 195만1287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으

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정 기준에 활용된다.

정읍시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